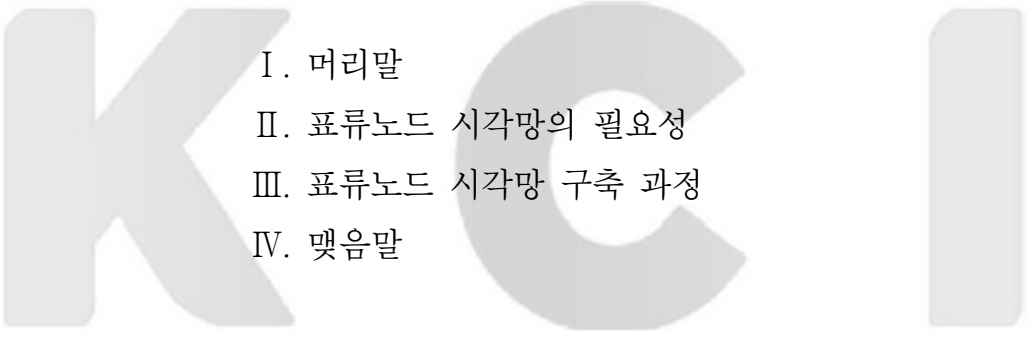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과정

— 표류 기록의 의미 요소 추출을 중심으로 —

이 수 진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연구원)

- 
- I. 머리말
 - II. 표류노드 시각망의 필요성
 - III.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과정
 - IV. 맺음말

<국문 요약>

이 논문은 '동아시아 교류에 관한 인문정보를 최근 연구 흐름에 맞추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없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수많은 표류 기록을 검토하여 그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시각적 데이터 관계망으로 재현해낸다면, 이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류 사건이 기록된 문헌을 검토하여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 지점', '송환 시기' 등 의미 있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설계된 온톨로지에 따라 관계성을 정의하여 시각적 데이터 관계망으로 제공한다. 관계망의 한 노드를 클릭하면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 지점', '송환 시기' 등 해당 내용이 수록된 고문헌 텍스트와 그 번역문,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 구조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적인 공간 정보는 구글 맵을 활용한 전자지도라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이후 문화산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전통 인문학 지식 정보를 수용·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을 위한 과정을 '문헌검토 요소추출' → '현장답사' → '시각망 구축' → '결과물 출판'의 4단계로 나누어 구성해 보았다. 첫째, '문헌검토 요소추출'은 표류사건이 기록된 문헌을 검토하여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 지점' 등의 시각망 구축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둘째, 추출한 요소를 바탕으로 주요 출해 지역, 표착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한다. 셋째, 표류 사건이 기록된 문헌을 분석하여 의미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시각적 데이터 관계망으로 구축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시각망 구축 전 과정을 담은 결과물을 출판하도록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1단계인 ‘문헌 요소 추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다. 조선시대 표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제주계록(濟州啓錄)』 등의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시각적 관계망 구축에 필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주제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제주계록(濟州啓錄)』, 표류, 표착, 시각망.



I. 머리말

2014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분야 디지털인문학사업을 공고하였다. 이 사업은 ‘디지털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식유통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인문학 성과의 체계적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원천소재콘텐츠 제공’하고,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인문학의 확장을 모색’하며, ‘기존 타부처 융합연구와는 차별되게 인문학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선도 연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¹⁾’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인문학 성과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개발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앞으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단순한 매체전환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인문학 소재의 맥락화·구조화에 입각한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개발과 모색을 기대하고 있다.²⁾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은 이와 같은 상황 하에 ‘동아시아 교류에 관한 인문정보를 최근 연구 흐름에 맞추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없을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수많은 표류 기록을 검토하여 그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시각적 데이터 관계망으로 재현해낸다면, 인문학 소재의 맥락화·구조화에 입각한 체계적인 디지털화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가 될 것이다.

1) 디지털 인문학이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현의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제 2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9~26쪽) 참조.

2) 201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디지털인문학사업 신청요강 1~35쪽 참조.

이에 본 글에서는 먼저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을 위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향후 적정 구현 모델에 관한 자문을 얻어 보다 바람직한 양질의 인문학 디지털콘텐츠로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표류노드 시각망의 필요성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은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표류사건에 관한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을 검토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기록을 통해서 표류 인물, 거주지, 출해(出海) 지역, 출해 목적, 표류 기간, 표착(漂着) 지역, 송환(送還) 시기 등의 맥락에 따른 사실 관계 정보를 추출하고,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제 간의 응용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인문 지식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표류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표류민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기억이지만, 이국의 체험이 어려웠던 시대에 뜻밖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에는 개인의 삶의 영역이 자유롭게 확대된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개인의 삶과 관련을 맺는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같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에는 개인의 활동 영역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 내부의 정보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쉽지 않았다. 특히 이국에 대한 정보를 취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조선시대 해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깝게는 중국, 일본, 유구 등지로 표류한 적이 있으며 멀게는 여송(呂宋[필리핀]), 안남(安南[베트남]), 대만 등지까지 표류했다가 송환되었다. 해상 활동이 증가된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표류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표류는 국가 간 접촉이 제한적이던 시기에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

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표류기록은 당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대외인식은 물론이고, 근대 이전 각국의 사회상이나 동아시아 각국 간의 교류, 당시의 국제관계와 국제질서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연행록이나 통신사행록을 보완하여 문화적 교류와 양상을 조명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와 여러 나라의 사회상과 인물상을 반영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표류민의 구조와 송환 과정에서 나라 간의 외교적 접촉이 가동되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표류기록은 문학이나 역사의 인문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당대인들의 사고방식이나 대외인식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와 국제 관계를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표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절풍이나 해류에 따라서 표류민들의 표착지는 중국, 일본, 유구, 안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되는데, 이때 표류민들은 상대국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해역에 대한 지리정보와 선박 건조술 등의 기술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사항이 표류기록에 남게 된다. 이처럼 표류 기록은 문학, 역사 분야에 그 효용이 그치지 않고, 국제교류·해양·조선·지리·정치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유용한 인문 지식 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나 일반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확산·수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텍스트는 모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몇 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전이나 영인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해독의 어려움 때문에 이공계는 물론 연관된 인문학 전공 연구자에게도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성을 지닌 표류 사건 기록을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 지역, 송환 시기 등의 맥락에 따라 요소를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인물이 표류하여 표착하는 사건을 시각적 데이터 관계망으로 재현해내고, 그 한 노드를 클릭하면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

류 기간, 표착 지점, 송환 시기 등 해당 내용이 수록된 고문헌 텍스트와 그 번역문, 사진 또는 영상자료 등 구조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는 시각적 데이터 관계망에 표시된 표류 사건 노드에 대한 접근을 시작으로 특정한 표류 인물이나 표류 경로, 표류와 관련된 고문헌 텍스트, 그에 대한 번역문, 표류 경로와 해류의 일치 여부 등 관심 영역에 따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정보를 시각적 관계망과 같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이후 문화산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전통 인문학 지식 정보를 수용·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과정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4단계의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문헌검토 요소추출’은 표류사건이 기록된 문헌을 검토하여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 지점 등의 시각망 구축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둘째, 추출한 요소를 바탕으로 주요 출해 지역, 표착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한다. 셋째, 문헌에서 추출한 표류사건 정보를 데이터로 생성하여 시각적 관계망을 구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각망 구축 전 과정을 담은 결과물을 출판하도록 한다. 이 논문에서는 표류노드 시각망 구현을 위한 문헌 검토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표류노드 시각망을 위한 기본 자료 구축

1) 공적 표류 기록

조선시대의 표류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관변 기록과 사찬 기록으로 양분되는데, 관변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변례집요(邊例集要)』, 『동문휘고(同文彙考)』,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제주계록(濟州啓錄)』 등의 문서가 있다.

당시 표류민의 송환과 처리는 외교 관계에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었다. 그래서 표류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관아에 보고되고 담당자의 조사 내용이 기록된다. 가장 대표적인 관변 기록으로 『표인영래등록』을 꼽을 수 있다. 『표인영래등록』은 예조(禮曹)의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찬한 것이다. 1641년(仁祖 19)부터 1751년(英祖 27)까지 약 110년간의 표류 사건이 연대순으로 조사·수록되어 있다.³⁾ 조선 표류민의 신분, 이름, 나이와 같은 개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표류 발생 시점부터 일본에 표착하여 구조되고 송환되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현에 가장 적합한 문헌 자료이다.

이 밖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⁴⁾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동문휘고(同文彙考)』, 『변례집요(邊例集要)』⁵⁾ 등에도 표류 기록이 있지만

3)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은 서울대학교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데, 1993년 影印本으로 간행되었다. 총 20책이지만 그 중 17책이 전해지지 않아서 1734년부터 1736년까지 표류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4) 조선전기에는 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표류 사실이 기록되었다. 중국인의 표류기록이 109건이고 일본인, 유구인, 서양인의 표류기록도 보인다.(원종민,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 제44집, 중국학연구회, 2008, 22쪽.)

5)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는 표류민의 송환과 差倭에 대한 접대 등이 외교 문제로 되었을 경우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표류민의 供辭와 같은 일차적인 기사는 없다. 『변례집요(邊例集要)』의 표류 관련 기사는 권3 「표차왜(漂差倭)」에 있다. 그 안에서 「표차왜(漂差倭)」, 「표인(漂人)」, 「표인순부

매우 산발적으로 남아 있거나, 그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표류 인물, 출해 지역,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 지역, 송환 시기 등의 표류노드 시각망 구현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 밖에 『제주계록(濟州啓錄)』⁶⁾처럼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보고한 문서 속에 표류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을 위해 일차적으로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을 표류 기록 추출의 주요 대상 문헌으로 삼았다. 위에서 언급한 관변 기록 문헌의 표류 사건을 모두 반영하여 시각망을 구축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상 건수 1000여건에 달하는 표류노드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추출하고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시간적·물리적·비용적 한계가 있다. 또한 디지털인문학의 방향이 단순한 매체 전환에 머무는 디지털화가 아니라, 맥락화·구조화를 고려한 체계적 개발인 만큼 완성도 높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을 위한 목표량 조정이 필요하다.

『표인영래등록』을 중심으로 하되, 그 기록이 시기적으로 1641년에서 1751년까지 100년에 한정되어 있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표류한 사건만

(漂人順付), 「쇄환(刷還)」의 네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주된 것은 앞의 두 항목이다. 「표차왜(漂差倭)」는 표차왜의 구성과 조선의 접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표인(漂人)」은 같은 사건을 표류민에 초점을 맞춰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표류민의 공사(供辭)와 같은 일차적인 기사는 없다. 『동문회고(同文彙考)』의 표류 관련 기사는 「표민(漂民)」 8권과 「표풍(漂風)」 7권이 있다. 「표민」은 청나라와 조선 간에 표류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표풍」은 일본과 조선 간에 표류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변례집요(邊例集要)』에 빠진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하우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1.)

- 6) 『제주계록(濟州啓錄)』은 제주목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을 모은 등록이다. 외국에 표류한 건수는 일본 35건, 유구 5건, 중국 19건이다. 계문(啓文)에는 제주목사가 조사할 때 표류민에 대한 진술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표류과정의 여러 가지 정황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여기서도 대부분의 표류민은 일본 내의 상황이나 자신들의 감회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하우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1.)

기록되어 있어서 이러한 점으로 보완하고자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전기의 표류기록을 추가로 추출하였다. 또한 『변례집요』와 『제주계록』을 통해 1751년 이후부터 1880년대의 표류 사건 기록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표인영래등록』 기사에는 기록 날짜 뒤에, 경상감사(慶尙監司)나 동래부사(東萊府使) 등의 표류사건 관련 보고 내용이 실려 있다. 송환되어 돌아온 표류민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신분, 거주지와 같은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출해 시기와 목적, 표류 시기와 경위, 일본 표착 시기와 표착 지역, 송환 과정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표류사건 추출샘플>

漂流人物 : 蔚山 沙工 私奴 金玉先, 格軍 張自奉, 平海 格軍 金今石, 權岳男 等 4명

居住地 : 蔚山 塩浦, 平海

出海時期 : 甲辰(1724)년 9월 27일

出海地 : 蔚山 塩浦

出海目的 : 新缸買得

漂流期間 : 甲辰(1724) 10월 9일

漂流地 : 平海 → 寧海境 丑山鎮 前洋

漂着時期 : 甲辰(1724) 10월 12일

漂着地 : 石州 松原村

送還經路 : 甲辰(1724) 10월 26일 ~ 11월 9일 長崎

→ 乙巳(1725) 1월 29일 ~ 2월 16일 對馬府中

→ 乙巳(1725) 2월 29일 ~ 3월 6일 佐須浦

送還時期 : 乙巳(1725) 3월 21일

出處 : 『漂人領來謄錄』 冊14, 乙巳(1725) 4월 2일

위 내용은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에 실린 1725년 4월 2일자 기사를 통해 추출한 정보이다. 1724년 9월 27일 바다에 나간 인물들의 성

명과 직분, 거주지는 물론이고, 처음 출해한 지역과 시기, 출해 목적, 표류 지점과 시기, 표착 지점과 시기, 송환 경로 등 풍부한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특히 표류지점을 ‘平海 → 寧海境 丑山鎭 前洋’와 같이 기록한 이유는 애초에 울산에서 출발한 일행 2명이 평해로 이동하여 평해인 2명과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영해인근 축산진 앞바다에서 표류한 경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⁷⁾ 송환경로의 ‘甲辰(1724) 10월 26일 ~ 11월 9일 長崎’는 10월 26일 기존에 머물던 지역에서 출발하여 11월 9일 장기에 도착했음을 말한 것이고 송환 시기 ‘乙巳(1725) 3월 21일’은 조선으로 출발한 날짜이다.

이처럼 자료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하나의 표류 사건 단위로 시각망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의 사건은 바다로 나간 지점, 표류한 지점, 표착한 지점, 송환 경로 등 ‘출해-표류-표착-송환’의 전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인영래등록』에 수록된 표류 사건 정보가 <표류사건 추출샘플>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정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특정 지침에 의해 기록되었더라도,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표1> 표류민의 ‘표류-송환’ 경로 사례

	표류 인물	출해 시기	출해 지점	표류 시기	표류 지점	표착 시기	표착 지점	송환 시기	출처
1	金靑龍 等 9名		蔚山	1723. 10.8	長髻 峽西里前洋	10.13	長門州	1724.2.19	1724.3.13
2	李業承 等 15名	1725. 11.23	蔚山	1725. 12.20	加德島外洋	12.21	對馬島 回浦	1726.3.9	1726.4.5
3	金善 等 13名		盈德	1727. 11.11		11.14	長門州	1728.3.28	1728.4.8
4	鄭山玉 等 17名		慶州 長髻	1695. 1.18		1.22	對馬島 鴨居瀨浦	1695.5.14	1695.3.25

7) 『漂人領來謄錄』 冊14, 乙巳(1725) 4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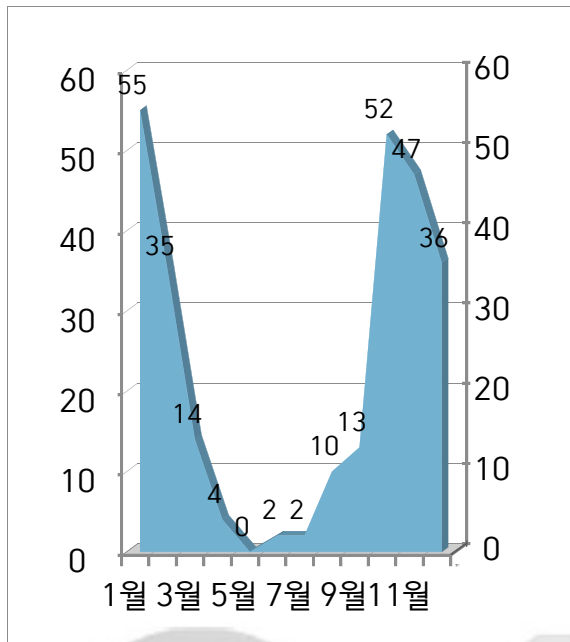
5	曹起男 等 12명		慶州 長鬢	1695. 1.18		1.22	對馬島 唐州志浦	1695.5.14	1695.3.25
6	崔忞祥 等 7名		東萊	1965. 10.8		10.11	對馬島 西泊浦	1695.12.23	1696.1.12
7	崔台男 等 7名		釜山	1965. 10.16		10.17	對馬島 佐須奈浦	1695.12.23	1696.1.12
8						春	對馬島 鰐浦		1680.3.19
9	10名					1700.2.2			1700.3.15
10	金玉福 (屍身)		蔚珍					1696. 9.18	1696.10.1

<표1-2>의 이업승(李業承) 일행의 경우와 같이 ‘출해-표류-표착-송환’의 전 과정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벽한 하나의 사건이 된다. <표1-1>의 김청룡(金靑龍) 일행처럼 출해 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표1-3>의 김선(金善) 일행처럼 표류 지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출해-표착-송환’의 과정을 담고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표1-4>나 <표1-5>는 3척의 배가 같은 날 바다에 나가 표류하여, 함께 송환되어 기록되었지만, 각기 2건으로 분류하였다. 2척의 배는 對馬島 鴨居瀨浦에, 1척의 배는 對馬島 唐州志浦에 표착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함께 표류하였더라도 표착지가 다르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표1-6>과 <표1-7>처럼 송환된 시기가 같더라도 표류시기와 장소가 다르다면 이들 역시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표1-8>처럼 ‘출해’나 ‘표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표착’만 있거나, <표1-9>처럼 표착 시기만 남고 최소한의 표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에서 제외하였다. <표1-10>과 같이 표류민 시신만 따로 옮겨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1641년부터 1751년까지 『표인영래등록』에 실린 110여 년간 표류 기록을 정리하였다. 제시된 표와 그림을 통해 전체 표류 사건 발생 수, 표류민 수, 월별 사건 발생 수, 거주지, 표착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류년도	표류 사건수	표류민 수
1641~1650년	11건	167명
1651~1660년	15건	262명
1661~1670년	14건	227명
1671~1680년	19건	242명
1681~1690년	15건	328명
1691~1700년	36건	432명
1701~1710년	29건	399명
1711~1720년	51건	601명
1721~1730년	37건	424명
1731~1740년	29건	310명
1741~1751년	21건	207명
합계	277건	3599명



<표2> 연도별 표류민 수

<도표1> 월별 표류 발생건수

전체 표류 사건 발생 수는 277건, 표류민 수는 3,599명으로 추정된다.⁸⁾ <표2>에 의하면 1691년 이후로 1740년까지 표류 사건 발생 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대마도의 對 조선무역이 쇠퇴해 가던 때로 무역에서의 부족액을 표류민의 송환을 메우려⁹⁾는 것과 관련을 지어볼 수 있다. 그러나 표류 사건 발생 수가 18세기를 넘어 19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해상교통의 발달로 선박을 이용한 상품유통이 크게 진전된 결과¹⁰⁾로 볼 수도 있다.

<도표1>은 월별 표류 사건 수를 시기별로 분류한 것이다.¹¹⁾ 주로 10

8) 박진미는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에 수록된 표류 사건을 총282건으로 분석하였다. 표류 사건의 기준을 ‘표류’ 내지는 ‘송환’ 중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건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두 기준을 절충하여 처리하였다.(『漂人領來謄錄』의 綜合的 考察, 『경북사학』 19, 경북사학회, 1996, 201쪽)

9) 이훈, 「朝鮮後期 대마도의 漂流民送還과 對日관계」, 『국사관논총』 제2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179쪽.

10) 고동환,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양상-漂流關係記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제14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3, 286쪽.

11) 월별 표류 사건 발생건수가 270건으로 전체 표류 사건 수 277건과 다른 이유

월부터 2월에 사이에 많은 표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기간 내에 무려 225건의 표류 사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그 원인으로 계절풍의 영향을 들 수 있다. 6월부터 8월에 이르는 여름에는 우리나라 남동쪽에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한 남동 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남풍 계열의 빈도가 높다. 그러나 가을(9~11월)이 되면서 겨울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며 북풍 계열의 바람 빈도가 높아지고, 12월에서 2월에 이르면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게 된다.¹²⁾ 이를 통해서 10월부터 2월에 이르는 가을, 겨울철에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를 향한 표류 발생이 빈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對馬島	鱒浦 17	西豆豆浦 3	和泉浦 1	泉浦 6	佐須奈浦 8
	富浦 2	西泊浦 9	湊浦 3	鴨瀨浦 4	佐護郷湊浦 4
	狩尾浦 1	豊浦 3	琴浦 3	唐州志浦 5	志多留浦 5
	豆殿浦 2	瀨濱浦 1	回浦 1	千尋藻浦 1	小茂田浦 1
	久根浦 1	阿連浦 1	尾崎浦 1	志多賀浦 1	二信道麻里 1
	對馬島 15				
	本州	石見州 22	長門州 69	出雲州 4	隱崎 2
九州	筑前州 28	肥前州 14	五島 17	平戶島 1	一崎島 5
	薩摩州 9				
기타	琉球 3	蝦夷 1			

<표3> 표착지 분포표

표류민의 거주지는 울산 지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장기 24건, 경주 23건으로 경상도 지역이 전체 거주지의 319건 중 218건으로 68%를 차지한다.¹³⁾ 이어서 전라도 지역이 88건으로 27%이다.¹⁴⁾ 이밖에 충청도

는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상에 표류 시기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2) 강윤희·석현배·방진희·김유근, 「한반도 주변해역의 기상부이와 등표에서 관측된 계절별 해상풍과 유의파고 특성」, 『한국환경과학회지』 24권3호, 한국환경과학회, 2015, 294~295쪽.

13) 경상도 거주 지역 분포건수 - 평해 1, 영해 10, 영덕 5, 청하 3, 흥해 3, 장기 24, 영일 5, 경주 23, 울산 39, 밀양 1, 양산 5, 동래 20, 부산 15, 김해 6, 창원

지역 해미와 결성에 각각 1건, 강화지역 1건, 경기지역 1건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착지는 주로 한반도의 동남해안과 마주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대마도 지역이 전체 273건 중 100건을 차지하여 36%이고, 本州가 97건으로 35%, 九州가 74건으로 27%를 차지한다. 특히 長門州에는 69건으로 조선인이 가장 많이 표착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¹⁵⁾

(2) 그 밖의 관변 기록 : 『조선왕조실록』, 『제주계록』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1397년부터 1878년까지의 68건의 표류 기록이 실려 있다. 이중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에 수록되지 않은 1641년 이전의 조선전기 표류 기록이 42건, 1641년 이후 『표인영래등록』과 중복되지 않는 표류 기록이 15건으로 총 57건의 새로운 표류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외국 표착 사례는 표착지를 확인할 수 있는 47건 중 중국 21건, 일본 17건, 유구 9건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는 『표인영래등록』에서와 같이 표류 인물, 출해 지역,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 지역, 송환 시기 등 시각망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일이 쉽지 않다.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사신을 보내어 글을 바치고 방물(方物)을 바쳤으며, 잡혀 있던 사람과 바람을 만나 표류한 사람 9명을 돌려보냈다.”¹⁶⁾는 기록이나 “유구국왕(琉球國王)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와서

7, 선산 1, 거제 6, 통영 4, 고성 9, 진주 3, 곤양 2, 남해 3, 좌수영 1, 해운대 1, 울진 1, 기장 7, 웅천 6, 사천 5, 순천 9, 낙안 4, 홍양 4, 장흥 11건 등이다.

14) 전라도 거주 지역 분포건수 - 강진 9, 나주 2, 영암 8, 해남 5, 진도 3, 무안 2, 보성 2, 제주 29, 강원도 삼척 3, 원주 1, 강릉 4, 양양 1건 등이다.

15) 표류민 거주지와 표착지점은 전체 표류 발생 건수와 다르다. 거주지의 경우,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표류했다라도 거주지는 개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표착지점의 경우에는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에 표착지 기록 없이 송환된 기록만 남아있어 따로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6) 『太祖實錄』 12卷, 6年(1397 丁丑) 8月 6日(乙酉) : 琉球國中山王察度, 遣使致書

토물(土物)을 바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표류(漂流)한 사람 공가(孔佳) 등 2명을 보내었다.”¹⁷⁾와 같이 표류인원과 표착지만 기록되는 경우가 있고, “제주(濟州)에 사는 이복대(李福大) 등 일곱 사람이 금년 정월 표류(漂流)하였다가 이때에 와서 노공필 등을 따라 함께 돌아오니, 의복을 지급하고 역마로 본토에 보내도록 명하였다.”¹⁸⁾와 같이 표류인물과 출신지역은 밝혀졌으나 표착지나 송환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제주계록(濟州啓錄)』은 조선 헌종(憲宗) 12년(1846) 2월 26일부터 고종(高宗) 21년(1884) 11월 6일까지 제주목(濟州牧)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啓文)을, 1864년 이전에는 비변사(備邊司)에서 그 이후는 의정부(議政府)에서 베껴 쓴 책이다. 연대순으로 정리되었으며 총 498건의 계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 지역의 농사 현황과 진상(進上), 제주도민의 외국 표류나 표류 도중에 외국 선박에 의한 구조, 행방불명자 수색 등 각종 해난사고 내용, 제주지역의 과거 시행, 관아의 건물 및 성첩(城堞), 무기 정비에 관한 내용 등 제주 지역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관한 보고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¹⁹⁾

『제주계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인의 외국 표착 사례는 전체 51건이다. 중국 표착 사례는 19건, 일본 27건, 유구 5건이다. 표류 건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우봉²⁰⁾은 『제주계록』에 수록된 외국 표류 건수는 중국 19건, 일본 35건, 유구 5건으로 표류연인원은 130명에 달한다고 하였고, 원종민²¹⁾은 중국 18건, 일본 26건, 유구 5건이라 하였다.²²⁾

獻方物，發還被擄及遭風人九名.

17) 『世祖實錄』 24卷, 7年(1461 辛巳) 5月 30日(己巳) : 己巳/琉球國王遣使來獻土物, 并送我國漂流人孔佳等二名.

18) 『中宗實錄』 3卷, 2年(1507 丁卯) 8月 22日(癸巳) : 濟州居李福大等七人, 今年正月漂流, 至是隨公弼等還, 命給衣服, 驛送于本土.

19)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4, 『제주계록』, 경신인쇄사, 2012, 5-7쪽 해제 참고.

20) 하우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13, 117쪽.

2) 사적 표류 기록

공적 표류 기록 이외에도 개별적인 감정과 체험을 기록한 사적 기록도 있다. 문장 구사가 가능한 표류민은 스스로 표해록을 작성하였는데, 현전하는 조선시기 표해록은 20종 가량²³⁾이다.

개인이 작성한 표해록은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흥미 있는 기록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20여종의 표해록을 모두 시각화 대상으로 삼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나 인력에 제한이 따르므로 대상 표해록을 몇 가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전체 표류 사건 상에서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고,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표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4종을 선택하였다.

하나는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이다. 1488년 정월, 제주에서 부임 중에 부친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표류하여 중국 영파(寧波)에 표착하였다. 영파(寧波)를 거쳐 소흥(紹興)→항주(杭州)→소주(蘇州)→진강(鎮江)→양주(陽州)→회안(淮安)→서주(徐州)→덕주(德州)→천진(天津)→북경(北京)→산해관(山海關)→광녕(廣寧)→요양(遼陽)→의주(義州)→한양(漢陽)²⁴⁾에 이르는 최부의 여정을 살필 수 있다.

풍계 현정(楓溪 賢正)의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은 1321년 그가 저술한 표해록이다. 경주에서 제작한 불상을 싣고 해남 대둔사를 향해 가던 중 1817년 11월 25일 동래 앞바다에 표류하였다. 이후 11월 29일 축전(筑前) 대도(大島)에 표착하여, 장기(長崎)와 대마도를 거쳐 해남 앞바다에 이르는 과정과 견문을 기록하였다.²⁵⁾ 이밖에 문순득(文淳得)의 『표

21) 원종민, 『『제주계록』에 기록된 19세기 제주도민의 해난사고와 중국표류』, 『중국학연구』 제66집, 중국학연구회, 2013, 322~323쪽.

22) 원종민의 경우, 중국 표류 사건을 18건으로 보았는데, 여기에는 1856년 9월 12일에 표류한 협재리 고치만(高致萬) 일행 사건이 누락되어 있다.

23) 최영화의 「18세기 전기 표류를 통한 해외 정보의 유입과 지식화 : 漂流記事纂輯書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11~12쪽)를 참조.

24) 박원호, 『최부 표해록 연구』, 고려대출판부, 2006.

25)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5, 207쪽~

해시말(漂海始末』을 통해 유구국 대도(大島)를 비롯하여 박촌(泊村), 필리핀의 salomague, vigan, 마카오, 중국을 거치는 표류 여정을 볼 수 있고,²⁶⁾ 김대황(金大璜)의 『표해일록(漂海日錄)』에서는 1687년 제주에서 안남국(安南國) 회안부(會安府)로 표류한 견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 표류 기록과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과 같이 조난자 내지는 제3자가 기록한 사적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공적 기록의 경우 조난자의 거짓 진술 사례가 발생하고, 사적 기록의 경우 조난자의 기억에 의존한 탓에 잘못된 정보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사적기록을 함께 비교·분석하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적으로 구현했을 때 『표인영래등록』과 같이 공적 기록의 시각망은 표류여정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지 못해서 단순한 직선 형태의 구현이 대부분이라면, 사적 기록물을 통해 좀 더 다채로운 표류노드 시각망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騰錄)』에 수록된 표류 사건은 총 277건으로 대략 3,599명의 사람이 표류하였다. 조선시대에 생성된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 가운데 표류 사건 기록을 살펴서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지, 송환 시기 등의 맥락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하면 대략 400여건의 표류노드 데이터 작성이 가능하다.

2. 표류민의 출해 지점과 표착지 현장 답사 및 자문을 통한 사진·영상 자료 확보

표류사건이 기록된 문헌을 검토하여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 지점 등의 시각망 구축에 필요한 의미 요소를 추출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추출한 요소를 바탕으로 주요 출해 지역, 표착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 표류민의 출해 지점과 표착지의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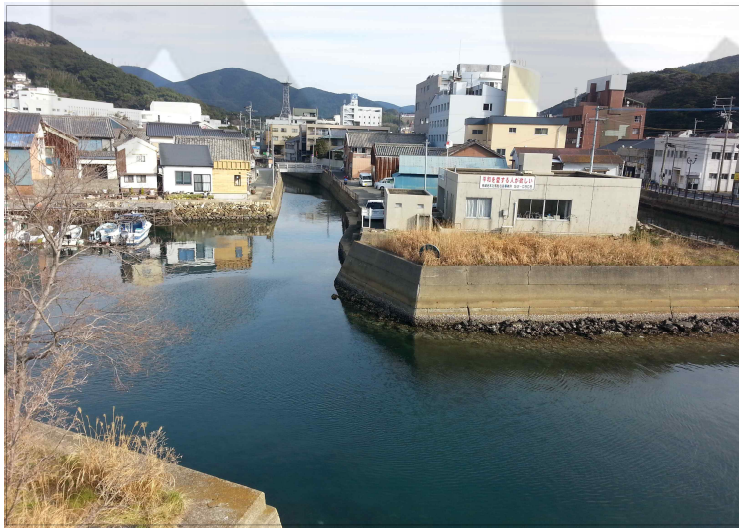
224쪽.

26) 최성환,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노정과 송환체제」, 『한국민족문화』 43,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장답사를 실시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표류 사건이 기록된 문헌을 검토하여 표류 인물, 출해(出海)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지(漂着地), 송환(送還) 시기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렇게 하여 얻어낸 표류 사건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표류민의 출해 지점과 표착 지점의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조선 표류민의 표착지는 가깝게는 중국, 일본, 유구와 멀게는 필리핀, 안남, 대만 등지까지 동남아시아 일대로 광범위하였다. 동아시아 일대에 이르는 표착지를 답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제약이 다르므로 표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우선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시각화 자료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표착지 현장 답사를 통해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그곳에 가보지 않고도 그곳에 남아있는 표류 관련 유적과 주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쓰시마 표민옥(漂民屋) 유허>

예를 들어, 조선의 표류민이 일본으로 표류하는 경우에는 대개 쓰시마를 통해 송환되었다. 현재 쓰시마에는 조선 표류민이 머물렀던 표민옥(漂民屋)의 유허가 남아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2월 일본 쓰시마 지

역 답사 시 찍은 표민옥 유허의 사진 자료이다. 이 당시 쓰시마의 주요 표착지인 鰐浦를 비롯하여 上對馬 동북 해안에 위치 西泊浦, 泉浦, 豊浦, 佐須奈浦, 琴浦, 尾崎浦, 阿連, 小茂田浦, 豆敷 지역을 직접 답사하였다.

앞으로 표류노드 시각망의 적정 구현 모델에 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

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학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정의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다.

3. 표류노드의 시각망 구축에 관한 제언

조선시대의 표류 관련 문헌에서 추출한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지, 송환 시기 등의 의미 요소와, 표류민의 출해 지점과 표착지 현장답사를 통해 구축한 이미지 자료를 구조화하여 시각적 데이터 관계망으로 재현해 낸다. 표류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화하여 시각적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표류 사건 노드를 클릭하면, 사건 관련 상세 정보가 하위 노드로 분류된다. 상세 사건 노드를 클릭할 때마다 관련 인물의 나이, 성별, 관직 등의 인물 정보 뿐만 아니라 표류한 경로, 표류 원인 및 출해 목적, 표착 기간, 표착지점 등의 시간적·공간적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도 표착지의 이미지나 영상, 표착지에서의 생활 및 교류 인물, 표류 기록 문헌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시켜서 하이퍼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다.

표류 노드 가운데 표착지에 대해서는 표착지별 표류민의 수를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해당 지역에 표류한 인물 정보를 비롯하여 표착 인물들의 표류 경로, 그 지역의 해류의 순환과 계절풍의 흐름도 등을 연계시켜서 시각적 콘텐츠로 제공한다.

정보의 내용과 맥락은 XML을 활용한 전자 문서로 작성하며, 개별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는 RDF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정보는 인문학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해양, 지리, 기후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지식 확장에 기여한다.

표류노드 시각망은 아래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최부(崔溥)가 제주도에서 표류한 뒤 중국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귀환하기까지의 경로를 시각화한 지도에서 시작한다. 최부가 왜구로 몰

려서 심문받았던 장소인 도저소 성터의 이미지 자료, 최부가 자신의 표류 경험을 적은 『표해록(漂海錄)』의 이미지 자료, 최부의 인물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부가 표류하였다가 귀국한 사실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번역문·이미지, 해류와 계절풍 순환도 등 최부라는 인물이 표류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맥락화·구조화하여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제공한 것이다.



<그림1> 최부의 표류경로와 시각망

이처럼 표류 사건의 시각적 관계망을 통해서 최부의 나이와 성별, 관직 등 인물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가 바다로 나간 목적은 물론이고 표류한 시기와 기간, 송환 시기, 표류 경로, 그가 송환되어서 심

문받은 장소 등 시간적·공간적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또한 그의 표류 사건 전말을 진술하여 기록한 공적 문헌의 원문과 번역문·이미지, 그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사적 저서의 번역문·이미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부가 교류하였거나 그의 표류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인물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표류한 다른 인물, 그가 표류한 지역과 같은 지역을 표류한 다른 인물, 그가 표류한 경로와 동아시아 해역의 해류와의 관계, 그의 표류 경로와 계절풍의 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하나의 노드에 대한 접근에서 출발하여 문학·역사 등 인문 지식뿐만 아니라 타국의 풍토와 민속·문물·문화·제도 등의 정보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해양·기후·지리·조선(造船)·법률·정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시각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전통 인문학 지식 정보를 수용·확산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이 추구하는 디지털콘텐츠이다.

현재 시각망 구현을 위한 표류 사건 관련 의미 요소 추출이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에서, 적정 모델 구현을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 시각화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표류 데이터를 최적화하여 구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일단 표류 사건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전자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온톨로지 설계 과정을 거쳐 시각적 데이터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밖에 표류 사건의 상세 요약 내용은 ‘위키피디아(Wikipedia)’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을 위한 과정을 제시해 보았다.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조선시대 표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공적·사적 기록을 대상으로 하여 표류 사건에 기록된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지, 송환 시기 등의 맥락에 따른 의미 데이터를 추출하는 일이다. 『표인영래등록』, 『조선왕조실록』, 『제주계록』 등의 공적 표류 기록과 개별적인 감정과 체험을 기록한 사적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공적 기록의 경우 조난자의 거짓 진술 사례가 발생하고, 사적 기록의 경우 조난자의 기억에 의존한 탓에 잘못된 정보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적·사적기록을 함께 비교·분석하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수집되고 의미 요소가 추출되면, 표류민의 출해 지점과 표착지 현장 답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표인영래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 표류민의 일본 표착지는 주로 한반도의 동남해안과 마주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대마도 지역이 전체 표착지의 36%를 차지하여 압도적이다. 조선 표류민의 표착지는 가깝게는 중국, 일본, 유구와 멀게는 필리핀, 안남, 대만 등지까지 동남아시아 일대로 광범위하므로 표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각화 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표류 사건 기록을 통해서 얻은 표류 인물, 거주지, 출해(出海) 지역, 출해 목적, 표류 기간, 표착(漂着) 지역, 송환(送還) 시기 등의 맥락에 따른 사실 관계 정보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류 사건 정보가 시각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류 기록은 외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던 당대인들의 대외 인식은 물론이고, 근대 이전 각국의 사회상이나 동아시아 교류관계, 국제질서 등을 조명할 수 있는 큰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연행록이나 통신사행록을 보완하여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양상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게다가 그 효용이 문학·역사 분야에 그치지

않고 해양·조선·지리·정치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유용한 지식 정보가 제대로 확산되고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 원전이나 영인본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일반 대중이나 타분야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성을 지닌 표류 사건 기록을 표류 인물, 출해 목적, 표류 원인, 표류 기간, 표착 지역, 송환 시기 등의 맥락에 따라 요소를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朝鮮王朝實錄』
『漂人領來謄錄』(규장각 자료총서, 금호문화시리즈 영인본, 보경문화사, 1993)
『濟州啓錄』(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4, 제주발전연구원)
강윤희·석현배·방진희·김유근, 「한반도 주변해역의 기상부이와 등표에
서 관측된 계절별 해상풍과 유의파고 특성」, 『한국환경과학회지』
24권3호, 한국환경과학회, 2015.
고동환,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양상-漂流關係記錄을 중
심으로」, 『韓國文化』 제14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3.
김 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
『인문콘텐츠』 제2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박원호, 『최부 표해록 연구』, 고려대출판부, 2006.
박진미, 「《漂人領來謄錄》의 綜合的 考察」, 『경북사학』 19, 경북사학회,
1996.
원종민,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
제44집, 중국학연구회, 2008.
이 훈, 「朝鮮後期 대마도의 漂流民送還과 對日관계」, 『국사관논총』 제2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5.
최성환,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노정과 송환체제」, 『한국민족문화』 43, 부
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최영화, 「18세기 전기 표류를 통한 해외 정보의 유입과 지식화 : 漂流記事
纂輯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하우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1.
<그림 1> 최부의 표류경로와 시각망 그림 출처
김명호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1』, 휴머니스트,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Abstract

The Process of Building the Visual Network of Drift Nodes in the Joseon Dynasty / Lee, su jin

This study introduced the process of building the visual network of drift nodes. The process for building “the visual network of drift nodes in the Joseon Dynasty” is as follows.

Step 1 extracts data from public and private literature containing records on drifts in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drifters, purpose of sailing, cause of drift, period of drift, place of landing, date of repatriation, etc.

With basic data for implementing “the visual network of drift nodes,” Step 2 visits and surveys the places of departure and landing, and has opportunities for correction and efficient academic activities through consultation with experts in modeling the optimal implementation of drift node visual networks.

Based on the previous works, Step 3 structures drift-related data and prepared image materials, and visualizes them on an electronic map. This is reproducing such data into visual contents by networking various drift-related elements based on their relations. The map is provided in hypertext in connection to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ncluding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age, gender, and government post of the drifters but also drift route, cause of drift, purpose of sailing, period of drift, images or videos of the place of landing, life and associated people in the place of landing, and literature containing drift records.

The last step publishes a book with the outcome of these academic activities including various items of humanities knowledge related to drifts in the Joseon Dynasty planned and built into digital contents, a series of processes, developed contents, etc.

Now materials for implementing the visual network are being organized. Based on the organized drift-related data, further research should be made on how to develop “the visual network of drift nodes in the Joseon Dynasty.” That is, we need to explore digital technologies for visualization, and methods for the optimized implementation of data. The optimal implementation will be chosen through an advisory council and the visual network will be implemented.

Key words: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Che-ju Kye-Lok』, Drifting, visual network, place of landing.